

새로 나온 책

▶ **칠십 여행**(이여진 지음) = "2023년 나는 대한민국 법적 노인이 되었다." 프롤로그의 첫 문장이다. 스물셋에 고향 제주를 떠나 33년간 교단에 섰던 저자가 은퇴 후 여행지에서 만난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지나온 여행지를 다시 검색하고 기록을 되짚으며 풍경, 사람, 사물, 공간으로 나눠 코타카나발루에서 알람브라궁전까지 독자들을 이끈다. 저자는 "여행은 바깥을 보는 일이었지만 더 깊이 보면 언제나 나를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스노우폭스북스.

▶ **삶의 끝에서 만난 수업**: 죽음이 가르쳐준 후회 없는 삶(에리카 하야사키 지음, 이은주 옮김) =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미국 킨 대학교의 '죽음학 수업'을 4년 넘게 밀착 취재한 기록이다. 강의를 맡은 노마 보워(보건정책학 박사)는 학생들에게 유서를 써보고 자신의 추도사를 상상하게 하며 묘지, 장례식장 등으로 데려간다. 이를 통해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게 함으로써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득하게 만든다. 저자는 강의실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변화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들여다봤다. 북모먼트.

▶ **바로크의 로마**: 아름다움에 눈 뜨는 도시(정진국 글·사진) = 로마의 거리는 늘 번잡해도 대개 몇 걸음만 옮기면 성당에 닿는다. 성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다. 미술평론가이자 사진가인 저자는 로마 역사 중심지의 성당을 두고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닌 건축과 예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거대한 미술관이라고 했다.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 속에서 다시 로마를 찾은 저자는 도시의 미로를 헤매며 그곳의 참모습을 기록했다. 고대 유적의 도시로만 알려진 로마를 17세기 바로크 예술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단집.

▶ **장이라는 대단한 세계**(구니사와 준 지음, 이효진 옮김) =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일본 면역 분야 권위자인 저자는 왜 장을 알아야 하는지, 장내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장내 세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했다.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암 외에도 수면, 스트레스, 우울증과도 관련이 깊다는 장내 세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카.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제주학연구센터의 『오라 공동목장조합 문서』

캐비닛 안에 잠든 제주 목장사 깨우다

일제 강점기 조합 형성기부터 2010년 최종 회의록까지 담겨 낱장 기준 3000여 매 문서들 마지막 조합장이 자료 지켜내 "우리가 마주한 개발과 보전 개인·공동체 관계 되짚게 해"



오라 공동목장조합 문서철. 왼쪽부터 승낙서·수납부·회의록·조합가입신청서·조합원각서철. '오라 공동목장조합 문서' 수록 이미지

캐비닛 안에 잠들어 있던 문서는 낱장 기준으로 3000매가 넘었다. 더러 곰팡이가 끼어 있었지만 다행히 판독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 문서들이 320여 쪽 분량의 자료집으로 출간됐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펴낸 '오라 공동목장조합 문서'로 문창선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이하영 제주대 자유전공 계약교수가 탈초·번역을, 강만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이 해제·감수를 맡았다.

이번에 발굴된 문서는 제주의 독특한 제도로 꼽히는 공동목장이 형성되고 변화하다가 마무리되는 전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제주 목축 공간의 장기 지속적 구조 변천, 제주 4·3 이후 마을 경제 재편, 새마을운동과 축산 정책에 대한 마을 대응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편찬팀은 승낙서, 회의록, 임야세 영수증 등 성격별로 묶여 있던 기존 문서철의 자료들을 연대별·주제별로 재배열했고 해제, 원문 이미지, 번역 등을 수록했다. 총 59건의 문서 중에서 1930~40년대 자료는 국유림이 개인·마을 소유로 전환되며 공동목장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을 알려준다. 또한 목장조합 재정 운영 체계, 일제의 조세·행정 체계가 지방 단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읽을 수 있다. 1950~60년대 문서는 한국전쟁 직후에도 공동목장이 재정비돼 계속 운영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문서에는 목장조합이 제주도 축산정책·새마을운동·국유림 사용 정책 등 국가·지방 정책과 연결되며 운영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1980~90년대 자료엔 목장조합 정관 개정, 조합원 수 변동, 재산 관리, 조합 자금 대출과 회수 내역 등이 들어 있다.

마지막 기록은 2010년 오라 목장조합 최종 회의록과 결산 자료다. 목장조합이 자산을 정리하고 해산을 결의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어떤 절차와 논의를 통해 막을 내렸는지 전한다.

이 문서들은 '오라동역사문화지' (2024)의 목축 분야 집필자였던 강만익 특별연구원이 마지막 오라공동목장조합장 박창욱 씨가 소장 중인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박 조합장은 책 말미 '서랍 속

에 남겨둔 제주 목장사-소장자의 회고'를 통해 "이 문서들 속에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내고 받은 돈의 내역, 회의에서 오르내린 이야기, 가뭄과 태풍 속에서도 목장을 지키려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목장 운영, 마을 공동체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편찬팀은 그가 2007년 나리 태풍 때 사무실에 물이 차오르자 캐비닛째 옮기는 등 자료 보존에 애쓴 점을 짚으며 "향후 조합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도내 박물관 등 문서 보관이 가능한 적절한 기관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안병 제주학센터장은 발간사에서 "공동목장은 단지 소를 기르던 장소가 아니라, 나눔과 협동, 그리고 공동체 자치의 원리가 살아 있던 생활 공간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발과 보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이 문서들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비매품. 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 파일로 열람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창작과비평' 60주년 특집 '케데헌'의 현재성·보편성 나해석·염상섭 사상 탐구

1966년 1월 창간한 '창작과비평'. 신생 잡지로서 척박한 문화적 토양과 열악한 경제 사정을 견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유신과 5공 독재라는 엄혹한 정치 환

민주주의·중도·인간해방... K담론의 미래

경과 그로부터 비롯된 폐간, 출판사 등록 취소라는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부정기 간행물 '창비 1987'을 발행했고 1988년 봄에 본래의 이름을 찾아 복간호를 냈다.

창간 60주년 기념호로 묶은 '창작과비평' 2026년 봄호(통권 211호)는 지난 여정을 되짚으며 'K담론의 거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른 나라의 모델을 잘 따르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며 문학이야말로 창조적 사유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호 특집은 'K담론의 성취와 미래'다. 2024년 봄호부터 진행해온 'K담론을 모색한다' 기획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이남주·백민정·박여선이 각각 정치·철학·문화 영역에서 K담론이 어떤 현재성과 보편성을 가지는지를 논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중도, 인간해방 등을 키워드로 한반도에서의 실천이 오늘날의 사유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세계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 이 중 박여선은 최근 K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에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통해 오늘날 K

문화가 그 지평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고 있는지 살폈다.

60주년 연간 연속기획으로는 문학평론란에 '한국문학과 K사상의 가능성' 연재를 시작했다. 강경석은 '새로운 문명의 단서들'로 첫 문을 열면서 대한제국의 황금기에서 태어나 20세기의 전반부를 치열하게 살다 간 화가 나혜석과 소설가 염상섭을 불러냈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원점을 개척했던 두 주역이 보여준 문학적 성취에 담긴 문명비판적 사유와 사상적 의미를 현재적으로 탐구했다.

'대화' 편에는 박누리·백영경·전준·주현우가 참여해 '우리 시대의 현장-무엇이 지역을 '위기'로 만드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호부터는 '찾아가는 현장' 기획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축 임**  
양천허씨제주특별자치도총친회 제35대 회장

**허창현**  
(양천허씨 35세 서호장사랑공파)

양천허씨제주특별자치도총친회 제3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천허씨 음악파 서귀포시총친회**  
회장 허승권 외 총친 일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